

# LNG캐나다 2단계사업

**1 사업개요(안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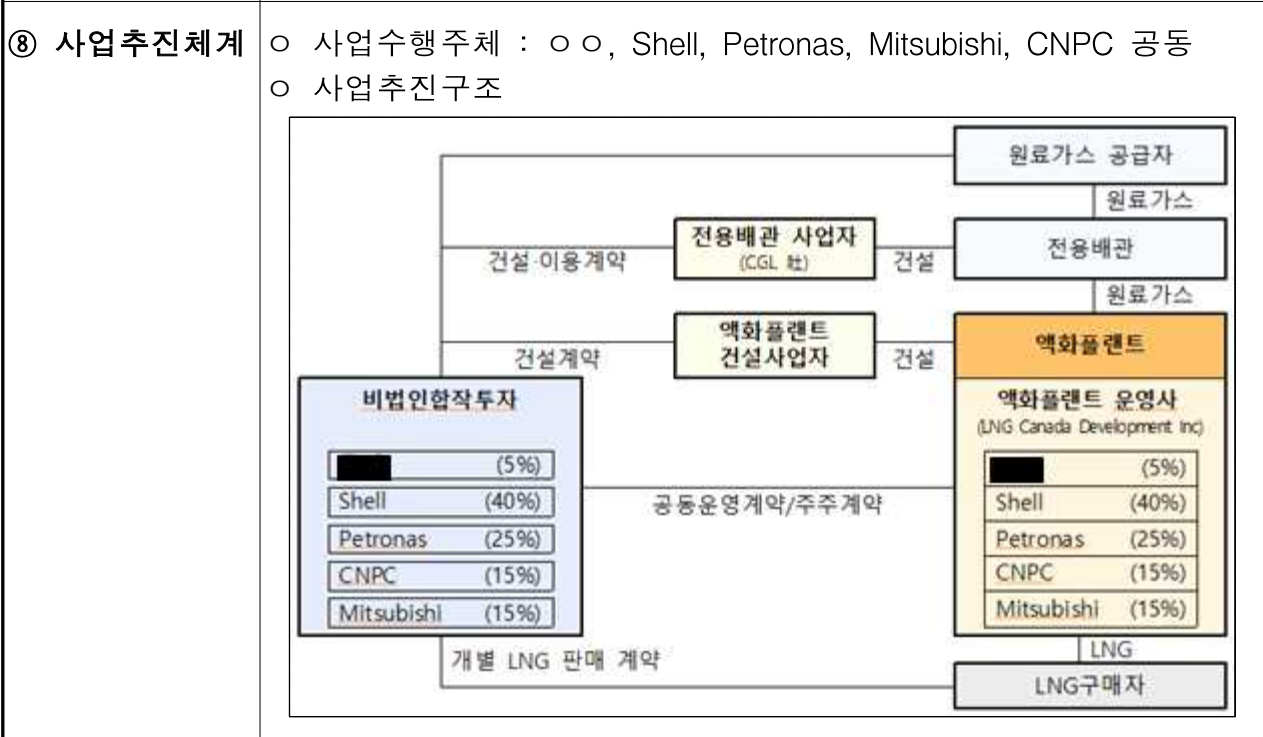
<b>① 사업명</b>	LNG캐나다 2단계사업		
<b>② 총투자비 (총사업비) (자체, 국고)</b>		<b>③ 사업기간</b>	'26년 ~ '65년 (2단계 40년)
<b>③ 추진 주체</b>	<b>주관기관</b>	○○	사업추진 부서 해외사업본부
			예산부서
	<b>주무기관 · 지자체</b>	산업통상자원부 / 가스산업과	
<b>④ 사업목적</b>	○ (도입연계 해외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건설/운영 사업) - 캐나다 BC주 서부해안에 천연가스 액화플랜트를 건설하여 캐나다의 풍부하고 저렴한 천연가스를 액화한 후 참여 지분에 해당하는 LNG를 국내로 도입 또는 제3자 판매		
<b>⑤ 추진경위</b>	○ 추진근거 : - ○○ 정관 제2조 1항 3호 “천연가스의 개발(액화사업 포함), 수송 및 수출입” - 산업부 “세일가스 선제적 대응을 위한 종합전략”(‘12.9월) ▪ 국내 LNG 도입량의 20%를 세일가스로 확보 ▪ 세일가스 개발을 위해 ○○의 투자재원확충 추진 (‘13.10월 7천억원 유상증자 중 세일가스개발 위해 16백억원 배정)  ○ 사전절차 추진내용 : - (‘19.10월) 2단계사업 개발준비단계 참여 이사회 보고 - (‘24. 9월) 2단계사업 개발준비단계 예산 이사회 승인		

⑥ 현 추진 단계

- 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: 진행 중
  - ('25. 9월) 외부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체결 진행 중
- 재원조달 계획 : 전액 자기자본 출자 예정
- 이사회 또는 위원회 의결 여부 등 기타 사항
  - ('19.10월) 2단계사업 개발준비단계 참여 이사회 보고
  - ('24. 9월) 2단계사업 개발준비단계 예산 이사회 승인

⑦ 사업규모

- 참여사 : Shell(40%), Petronas(25%), Mitsubishi(15%), CNPC(15%), ○○(5%)
- 위치 : 캐나다 서부 Kitimat 지역
- 사업내용 : 액화플랜트 건설/운영하여 ○○지분에 해당하는 LNG 도입 또는 제3자 판매
- 사업기간 : '26년~'65년 ('32년부터 33년간 LNG 생산)
- 규모 : 연14백만톤(7×2 Train), 1단계와 동일



⑨ 재원조달구조

- 총투자비 :
  - 액화플랜트 등 건설비용
  - 기본설계 및 플랜트 건설 준비비용
- 운영비 :
  - 상업생산 이후 발생 수익을 통하여 충당 계획
- 재원조달구조와 기관의 참여형태 : 자기자본 100% 기관출자 예정

⑩ 투자재원회수

- 사업의 총 투자비 회수방식 : LNG 판매계약(LNG SPA)에 따라 발생하는 판매수익을 재원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총투자비 회수
- 운영비용 지출 및 회수계획(사용료 수입 등)
  - 수익 발생시점 이전 운영비용은 자본금으로 조달, 수익 발생시점 이후 운영비용은 수익을 통해 자체 조달 예정
- 자체의 투자비 회수방식 : 배당 및 이자, 감자 등

⑩ 공공기관의 사업보증 등 내용 (운용지침 제4조 제2항(주3) 참조)

○ 공공기관의 사업보증 등 내용 : 2단계 FID시점에 모회사 보증 패키지로 제공될 예정이며, 아직 보증 필요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. 1단계 추진 당시 제공했던 보증을 통해 아래와 같이 추정 가능

구분(예시)	보증(이행)내용	예상액(백만불) 및 보증(이행) 기간
액화플랜트 건설 등	참여사간 액화플랜트 건설 관련 총 투자비	
CGL배관 인프라 증설	CGL배관 인프라 확장 건설 관련 투자비 보증	
담수 및 해수 생태 보호	해수 및 담수 생태 환경 조성 및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발생 가능한 비용 상환 보증	
FT-D가스 인출권한	AECO 시장에서 구매 한 가스 운송을 위해 공용배관망 사용시 사용요금 지불 보증	

⑫ 향후 진행 절차 및 일정

○ 향후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:

- 최종투자결정(FID) 및 액화플랜트 건설 개시 : '26.9월

<FID이전 예상일정표>

구 분	'25년		'26년	
	액화플랜트	EPC가격 협상 ('25.2~'25.10)	EPC가격 확정 ('25.11~'25.12)	
전용배관 승압설비	기본설계 및 건설계약 체결 ('25.9~'26.3)		건설 투자비 확정 ('26.4)	
캐나다정부, 원주민 협의	협의완료 ('25.10)			
전문기관 외부 타당성조사	용역착수 ('25.10)	중간보고 ('25.11)	용역 계속수행 ('25.12~'26.2)	최종보고 ('26.4)
정부 예비 타당성조사	예타신청 ('25.9)	산업부/기재부 협의 ('25.10~'25.12)	본 조사 시행 ('26.1~'26.6)	
정부 협의 (기재부, 산업부)	예산 협의 ('25.11~'25.12)			FID 협의 ('26.7)
공사 투자 의사결정	개발준비 예산 이사회 ('25.12)			최종 FID 이사회 ('26.9)

- 액화플랜트 건설 : '26.9월 ~ '32년 상반기 중
- 상업 생산 개시 : '32년 상반기

<p>⑬ 사전용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사기관 : Poten &amp; Partners</li> <li>○ 조사기간 : '25.9월 ~ '25.12월</li> <li>○ 용역결과 : 진행 중</li> </ul>
<p>⑭ 사업기대효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지분물량 확보) ○○가 자율처분권을 가진 지분물량 확보로 탄력적인 수급관리 및 경쟁력 있는 가격의 LNG 도입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○○ 지분물량(5%) : □□만톤(1단계 포함시 □□만톤/연)</li> <li>- (도입조건 유연화) 3자구매 대비 ○○에 유리한 조건(도착지 제한 제거, 실효적 감량권/증량권 확보 등) 으로 도입</li> <li>- (수급유연성) 기존 도입계약의 경직성을 벗어나 국내 가스 수급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</li> <li>- (가격 결정) 캐나다 조세당국 이전가격 규정이 허용하는 최소 수준의 ROE 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 도출</li> </ul> </li> <li>○ (도입 다각화) 도입 지역 및 도입가격 방식의 다각화를 통한 도입 포트폴리오 안정성 및 최적화 도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중동 外 공급선) 기존 중동에 집중된 도입선을 정치적으로 안정되고, 풍부한 가스매장량을 가진 캐나다로 확장</li> <li>- (수송 안정성) 말라카 해협 혹은 파나마운하 같은 해상 운송 병목지역을 통과하지 않아 안정적인 수송일정 확보 가능</li> <li>- (유가연동 탈피) 유가연동 위주 국내 LNG가격을 캐나다 가스허브(AECO) 지수에 연동시켜 유가변동 노출 완화</li> </ul> </li> <li>○ (1단계 완공으로 개선된 사업조건) 1단계 경험 및 기 설치 인프라를 활용하여 리스크가 저감된 안정적인 LNG사업 추진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 설치된 인프라 활용(전용배관, 항만 등)으로 건설기간 지연요소 해소</li> <li>-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건설 및 운영 효율성 제고</li> <li>- LNG 생산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추가 원가절감 기대</li> </ul> </li> </ul>

## ② 사업 추진의 필요성

<p>① 사업추진의 적시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 추진시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예산요구 예정연도) '26년 3/4분기 최종투자결정 이후</li> <li>- (사업 착수시점) '26년 3/4분기 EPC사업자에 착공지시 이후</li> <li>- (완공시점) '32년 LNG 생산예정</li> </ul> </li> <li>○ 사업 추진단계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재 개발준비단계(기본설계)를 수행, 최종투자결정 시 실시설계 착수 예정</li> </ul> </li> <li>○ 추진시기 적절성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환경적인 측면 및 미 추진 시 영향 등을 고려하였을 때, 현 시점에 LNG캐나다 2단계 사업 참여 결정 필요</li> <li>- (사업환경) 러시아·우크라이나 전쟁, 미국 트럼프 정책영향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자국 우선주의 등의 영향으로 국제 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, 리스크 회피가 가능한 사업국(캐나다)에서의 사업 확대에 안정적 도입선 확보 필요성 가중</li> <li>- (사업 미 추진 시 영향)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각종 기대효과 상실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지분물량 확대 기회 상실 국제정세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분물량 자율처분권을 활용할 경우 국내 LNG 수급 상황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여 장기적 사업 전략으로써 ○○ 지분물량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 포기 시 지분물량 확대규모 감소 예정</li> <li>2) 1·2단계 통합 운영에 따른 생산단가 절감 효과 감소 LNG캐나다 1단계 기본설계 시 설비확장을 전제로 추진되어 공용 설비 및 전용배관 등 각종 인프라 설비용량에 2단계 확장개념설계가 기 적용되었으나, 사업 미 추진 시 해당 인프라의 공동이용 및 통합운영을 통한 절감 등의 사업효율성 극대화 기회 상실</li> <li>3) 기 투자비 비용처리 및 사업수익 포기 FID이전 개발준비예산으로 승인('24.9월)한 약 ㄱㄱ백만불 매물비용 처리해야하며, 현재 ○○ 경제성평가 기준 NPV ㄱㄱ백만불(@ ㄱㄱ%), 내부수익률 ㄱㄱ%로 평가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할 수익을 포기</li> <li>4) 사업 참여사 및 캐나다 정부 신뢰관계에 악영향 셸, 미쯔비시, CNPC 등 사업 공동 참여사 및 캐나다 정부와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초래함으로써, 1단계사업 운영 및 향후 추가 사업 기회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</li> </ol> </li> </ul> 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--	---

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

- 제6차 자원개발 기본계획(산업부, '20.5월)
  - (2) 자원안보를 위한 개발-도입-비축 전략
    - (개발) 4대 전략지역(북미, 중동, 신북방, 신남방) 선정
    - (도입) 중동 의존 감소를 위해 러시아, 미국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
-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(산업부, '23.4월)
  - IV. 천연가스 도입 및 수급 : 공급 및 가격 안정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와 경제적인 LNG 도입 추진
    - (LNG 수입국 및 공급선 다변화) 기존 중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수입국을 LNG캐나다 사업을 통해 다변화하여 국내 천연가스 수급 불안 최소화 가능
    - (계약기간별 포트폴리오 다양화) LNG캐나다 사업은 지분물량에 대한 자율처분권을 바탕으로 국내외 공급변동 상황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, 다양한 계약 포트폴리오 구성
    - (인접국과 협력 강화) LNG캐나다 사업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LNG 소비패턴이 유사한 일본(Mitsubishi)·중국(CNPC)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인 협력 체계 강화 가능
- ○ ○ 중기 경영계획과의 연계성
  - (○○ '25~'29년 경영목표, '24.11월) 12대 전략과제 중 '해외사업 성과 극대화'와 '사업간 연계로 시너지 창출'에 해당
  - ('25~'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, '25.9월) LNG캐나다 2단계 투자비 기 반영

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

- 해당국가 유사 투자사례(LNG캐나다 1단계 사업)와의 차별성
  - '25.6월 LNG캐나다 1단계 상업운전이 개시하여 기술성, 사업성 등을 입증하였고 '26년부터 수익창출이 실현을 예상하고 있으며,
  - LNG캐나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완료로 리스크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실현 가능

구분	LNG캐나다 1단계 사업 (○○)	동 사업
사업목적	· 캐나다의 저렴한 천연가스를 캐나다 서부해안에 액화플랜트를 건설하여 지분물량에 해당하는 LNG 국내 도입 또는 제3자 판매	
추진방법	· 비법인합작투자 방식으로 사업 추진 - 별도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프로젝트 진행파악, 참여사 몫의 자산에 대한 분류 및 평가, 회계처리 등 참여사가 개별적으로 처리 - 각 참여사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원료가스 및 생산 LNG 마케팅을 통해 조달 및 판매	
사업규모	· (플랜트) 액화설비 2기, 저장 탱크 1기, 유틸리티, 부지, 항만 · (전용배관) 배관 00km, 승압기지 1개소	· (플랜트) 액화설비 2기, 저장 탱크 1기 · (전용배관) 승압기지 5개소
사업위치	· 캐나다 BC주 Kitmat 지역	
생산용량	· LNG 00백만톤/년	· LNG 00백만톤/년
리스크	· 전용배관 등 공사난이도 높음 · 건설 제반시설 및 인력 부족 · 정부 인허가 난이도 높음	· 전용배관 기확보 · 1단계 극복방안 동일적용 · 1·2단계 통합 인허가 기획됨

③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

<p>① 국가위험 평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 신용등급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캐나다는 주요 신용평가기관에서 모두 최상위 등급을 부여*받고 있으며, 향후 전망 또한 신용등급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‘안정적(Stable)’ 전망임</li> <li>* Moody’s : Aaa / S&amp;P : AAA / DBRS : AAA</li> </ul> </li> <li>○ 정치환경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캐나다는 입헌군주제 기반의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, 제도적 안정성이 높으며, 정권 교체가 있어도 법치·사법체계·언론의 자유 등이 보장되고 있음</li> <li>- 최근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·에너지 프로젝트의 승인절차를 가속화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으며, 정책 속도가 빨라질 여지는 있으나, 이해당사자(원주민, 환경단체 등)의 반발 가능성 또한 상존</li> </ul> </li> <li>○ 경제환경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계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,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 창립국이자, G7(서방선진7개국)의 일원으로 경제적 안정성 또한 매우 높음</li> <li>- 다만, 높은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, 장기화되는 성장률 둔화, 실업률 증가 등 노동시장 약화가 경제적 불확실성 요소임</li> </ul> </li> </ul>
<p>② 사업위험 평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지여건 관련 리스크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단계에서 이미 Kitimat지역의 LNG액화 플랜트, 부두, 주요 배관망, 항만 및 전력 공급시설이 구축되어, 2단계에서는 신규 인프라 건설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고 공사 지연·환경 인허가 리스크도 상당부분 완화됨</li> <li>- 1단계 당시 북부 BC지역에서의 숙련 인력 및 자재 수급의 어려움이 있었으나, 현재는 현지 노동자 풀의 경험 축적, 숙련공 유지, 기존 협력업체 네트워크 확립으로 2단계에서는 조달·고용 리스크가 감소</li> </ul> </li> <li>○ 시장여건 관련 리스크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원료가스) BC 및 Alberta주의 풍부한 매장량과 기존 가스전 연결관망 덕분에 공급 기반은 안정적이며, 1단계를 통해 주요 계약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2단계에서는 상당부분 불확실성이 완화</li> <li>↳ 다만, 캐나다 내 다른 LNG 프로젝트(Woodfibre LNG, Cedar LNG 등)와의 원료가스 확보 경쟁은 중장기적으로 대두 될 수 있음</li> <li>- (LNG 수요 및 가격 변동성) 아시아 시장의 장기 수요가 1단계 계약으로 기 입증되었고 2단계 확장 또한 증가되는 수요에 대응될</li> </ul> </li> </ul>

것으로 보이나, LNG 국제 가격의 변동성(유럽 수요, 미·중 무역 갈등, 중동 정세 등)은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

- (경쟁 프로젝트) 미국 프로젝트를 비롯해 '26년부터 다수의 프로젝트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어, 현재 예정되어 있는 2단계 사업 FID('26.9월)를 통해 시장 선점 필요

③ 사업참여기관간  
위험배분

○ 사업 참여사 간 위험의 배분과 헷지전략

- (합작사업) 합작투자계약서(Joint Venture Agreement)에 의해 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위험 배분을 위하여 LNG Canada사업 참여사들은 일정비율의 지분을 보유하여 권리와 의무를 유지

<투자회사 및 지분구조>

투자회사명	지분
○○	5%
Shell Canada Energy (Shell)	40%
North Montney LNG Ltd (Petronas)	25%
Diamond LNG Canada Ltd (Mitsubishi)	15%
Phoenix LNG Canada Partnership (CNPC)	15%

- \* 비법인합작투자(UJV) 형태로 사업 추진
- (각 참여사간 모회사 보증)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참여중인 모든 참여사들은 각각의 모회사 보증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타 참여사의 자금조달 위험을 배분함
- ※ 모든 참여사는 각각의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사업 참여 중

④ 민원 및 분쟁  
가능성 등 기타  
예상되는  
문제점

○ 민원 및 분쟁 가능성 평가

- 캐나다 BC주 정부는 전통적으로 자원 수출국인 캐나다의 수출의지를 반영하여 매우 협조적이며, 연방 정부 또한 LNG캐나다 2단계 사업을 국가 주요 Fast-track 프로젝트로 선정
- 이에, Kitimat 지역사회는 크게 환영하며, 해당 프로젝트가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차원의 경제적 기대감 상승
- LNG캐나다 1단계 사업 추진 당시에는,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환경단체 및 원주민 등의 반발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나, 지속적인 홍보 노력을 통해 현재는 지역단체 및 원주민 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법정 권고 수준 이상의 원주민 협의를 완료하였음.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큰 민원 및 분쟁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



② 기관의 재무성

○ 배당 및 감자 현금흐름

(단위: US\$ 백만불)

	'38	'39	'40	'41	'42	'43	'44
금액							
	'45	'46	'47	'48	'49	'50	'51
금액							
	'52	'53	'54	'55	'56	'57	'58
금액							
	'59	'60	'61	'62	'63	'64	
금액							

③ 기관의  
재무 안정성

○ 사업수행 기관 재무 안정성

구 분	S&P	Moody's	Fitch
최종평가일	2023년	2023년	2023년
평가등급			

○ 주요 재무지표 (연결기준)

구 분	'22	'23	'24
영업이익률			
자기자본순이익률			
영업이익대비이자보상배율			
부채비율			

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유 : 해당없음

⑦ 수익성 등 분석 생략 필요성 : 해당없음

⑧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필요성 : 해당없음